

내년 국가예산 막바지 '총력전'

정현을 시장, 기획재정부 핵심인사 만나 예산반영 호소

익산시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내년도 국가예산 안에 최종 확보를 위한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9일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점사업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수홍, 한병도 국회의원과 공조 강화로 막판 전력투구에 나섰다.



우선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등

정부 핵심인사를 만나 익산시 주요 전략사업을 가려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 막판 버저버더(종료시간 넘는 끝)를 위한 신규 핵심사업을 건의했다. 백재영도 핵심유적에 국·내외 방문객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연계한 장소에 정통숙박 및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백제 금마제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했다.

국내 화강석 3대 산지이며 8%의 석

취체취업, 160여개의 석재가공업 등 석재산업의 기본 인프라와 역사가 갖춰진 익산에 석재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 석재산업 진흥센터 설립' 등도 반드시 내년 예산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현을 시장은 "10월부터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현장대응을 하고, 김수홍·한병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공조 체계를 끈끈히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 왔다"며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 중인 사업들이 최종 의결 때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장래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본격화

논리개발·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군산시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최근 활발히 진행중인 철도개발사업에 따른 철도환경 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산은 현재 군장선과 인입철도 및 익산~대야 복선전철이 지난 2020년 12월 개통됐으며 장항선 복선전철(2026년 개통예정), 경부 고속철도(KTX)와 서해선 장항선 연결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대야에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공사가 추진

됨에 따라 철도환경 급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확보로 용역발주, 과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업은 국가철도정책 분석 및 역 신설 논리개발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반영과 역 세권 개발 방향 및 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제시 등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산시민의

복색있는 계획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가철도정책과 연계해 협의의 추진, 군산시 장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논리 개발 및 타당성을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과 2028년 서해선이 장항선과 연결되면 군산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10분대로 연결되며,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완성되는 2035년경이면 군산은 서해안권 철도 중심지로 거듭나고, 철도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전략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QR결제 가맹점 1년새 4000곳 돌파

익산지역화폐 '다이로움'의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결제)가 시민들에게는 결제 편리성을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가맹 수수료가 0%대로 낮춰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빠르게 인착하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가맹점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착한페이' 앱으로 결제하면 다이로움 충전금액이 '계좌입금'을 통해 가맹점 대표의 연결 계좌번호로 환전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한 가맹점 특화지원 결제 서비스인 '다이로움 간편결제(QR코드 결제)' 가맹점이 1년여 만에 가맹점 수 4,167개소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절감과 신속한 자금회수로 가맹점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



된다. 간편결제카드 수수료는 매출액 8% 원 이하 가맹점주에게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12% 이하 0.3% 12% 초과 0.5%로 0%대 부과율을 유지한다. 또한 결제 즉시 매출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빠른 자금회수와 유동성 확보가 큰 장점으로 꼽힌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물 카드 소지없이

이 결제가 가능해 사용이 편리해 이용 선호도가 갈수록 높여나고 있다. 시는 다이로움 간편결제(QR코드 결제) 가맹점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 결제) 키트를 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업을 희망하는 다이로움 가맹점은 착한페이 앱상에서 가맹점 모드 전환 메뉴를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이로움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다이로움 가맹점에도 이득이 되는 많은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서남부권 축산악취 잡는다

익산시, 원광대 산학협력단 용역 실시... 악취 저감 대책 마련

익산시가 서남부권 악취 저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악취의 주요 원인이 김제시 용지면의 축산단지로 파악됨에 따라 행정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남부권 축산악취 민원의 발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익산 서남부권 악취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김제시 용지면 축산단지에서 축산악취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송학동과 모현동, 동산동 등 익산 서남부권 주거지역과 김제시 용지면 축산단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용역을 추진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패시브 샘플러(악취 시료 포집기)로 김제와 익산지역 각각 5개 지점을 설정해 120개 시료를 분석하여 김제 용지면에서 익산까지 암모니아 농도 추이를 분석했다. 이어 지표·고층

기상장 분석 및 악취확산모델링을 활용하여 용지면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김제시 용지면 축산시설에서 암모니아를 주성분으로 하는 다량 유기농산물 냄새가 남풍 계열의 기상 조건일 때 익산시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학동,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어양동, 영등동 악취농도가 10~17(OU) 수준으로 엄격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인 10(OU)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서남부권 악취 발원지가 김제시 용지면 축산시설로 밝혀짐에 따라 김제시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악취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용지면 협업축사 매입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 피해 상황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희망2023 나눔캠페인' 내달 1일 시작

군산시는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나눔 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13억 7천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전북 도내 1위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모금액의 80%를 나눔 목표로 설정, 나눔의 기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의 모금액은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의료비 및 활동단

방비,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며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나눔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더욱 따뜻한 군산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캠페인 기간동안 후원금·품기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282-0606), 군산시 복지정책과(454-3073)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설된 접수창구를 통해 기탁 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익산시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나섰다. 시는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신청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모 가능 업체는 사전 선정된 12개의 답례품목을 생산하는 관내 업체만 가능하며, 추후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종 답례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준비를 위해 모집공고 상세내

용을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답례품에 달려있으며, 많은 업체의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 답례품은 지난 11일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통해 쌀, 고구마 등 주요 농산물과 건강검진 할인권, 문화예술의 거리 체험권 등 모두 12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내 집·상가 앞 눈치우기 재설장비 지원

군산시는 29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내 집(상가) 앞 눈 치우기' 실효성 도모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설 자재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읍면동에 포대 염화칼슘(25kg) 사전 배부를 완료했다. 추가 제설 자재 확보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포대 염화칼슘을 읍면동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겨울철 연례된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장비 및 자재 미확보 등으로 갑작스러운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이 어려웠던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그간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내 집(상가) 앞 눈 치우기' 홍보 및 참여 확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익산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다음달까지 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9일 전대시 부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하반기 운영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비중이 높은 10개 부서의 과소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과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보고회를 통해 지방재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남은 기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